The Korea Daily News. Seonl, Korea, Saturday, Oct. 24th, 1925. A KOREAN VIEW OF

PACIFIC RELATIONS. BY HUGH CYNN III We all realize the fact that there cannot be had any development of industry and commercial relations without capital and that capital is in the control of the banking system. A great deal has been said about the increase of commerce and industry in Korea during the past decade, but when we consider who were enabled to carry on the

commerce and start the industry we can

grasp the situation in which the Koreans find themselves. The situation is made plain in a statement made by Mr. Minobe and the Bank of Chosen which is government controlled and practically government-owned, and is the only bank in the country that is legallized to issue banknotes. It is the heart-center of the whole financial system in Korea. The bank was under very severe criticism on account of always such large losses incurred in Manchuria and he spoke the following | 付線 befor the stockholders: "The Bank of Chosen was originally floated to help Japanese business interests expanding in Chosen (Korea) and Manchuria, and its function is important. In view of its special position, the bank has been rendering all help necessary to persons and organizations whose expansion in Chosen and Manchuria is economically important. All this has been done to do service to Japan's economic cause." (Japan Advertiser, Aug. 18, 1922). This, at last, accounts for the inability on the part of our people to get enough capital to start any large industry and establish any substantial commercial relation with foreign countries. Our problem is to put the financial system of the country on an equitable basis and to make it possible for the introduction of foregin capital into the

太平洋問題の關心朝鮮觀察(三)

financial realm of the Korean people.

馬山青年曾總會民一時間多別では、一十一日本の一十二十十日本の一十二十二十十二十十八時の第三回定期總四号石馬山青年會の外に入せ二十一日本部報告張在輸民司會豆會錄別歌叫時人與部分有世後會館建築問題中間多別。

作、 全國語等。 全國語等。 全國語等。 一部(普通學校一 一部(普通學校一 一部(普通學校一

B校一二學 學校一二學 工學

總會場所以即即

手附

急

合向龍と孫側方の

中月二十八日外八 削鮮日報安東支局 創立事務所 東東寄午會館

場申申申

京城妓生도出場

작르大 하고槪 는 `어





三時五十分早已石井球審松 軍共司対各부러緊張되야二回에

으로시카고軍이豚計リ州는五時

에田計0:金貞額投前世三에二淮

孝俊右大飛球失斗清水四球에前 量에片岡三越安打州原山生選大

◇第六回 三者凡退後▲八軍 의이스捕邪飛一死後召빈스-- 匍

◇第七回 三者無爲▲八軍· 死後叫콘넬ー側安打斗J하우엘 四球出計コ世릐世投兼와이스三 側安打에二死議量된山石산스中

◇第九回 安塚軍一死後蘇麟

賞左飛引のメイ

點乌取▲八軍三者凡退

4清 2片野崎 5端

3億打2 2盗銀7 9項量3 9金良楠 1三打0 答(人) 000400020 =6 数(費 0030 0281 A=9A

本산에서자고 양주히도라깃다 원이 그칠사이 업시나라나당 인의 그칠사이 업시나라나당 이 역민하이날등하는 이 역지난 심필열한시장에 기 권총을 휴대한부장단역성

[미리비기는 누가템버] 다그림이게램비는게아니야이 그러나 오늘당기 일어난것이라 드지 슬을먹는것이라든지 마층다 만내는군치가 어제 8주회에서 양음

다 사 내 다 아니 아이는

八名의

的婦が深夜逃走

만

奎四球三出动头二叶真植右飛大

(黄海道聚二浦)일대에는지난십 다일부터 일기가 몰만하면하다 더 집단처음이라 어 타하다 別不即の他門け四市

원도 이것을뿐터리 이번에 함한한다음질십원이들이었는 금보관한 점의자로서 그의

[STAT 별소리를 다듯겠군! 합작불럇지-----그러기로서니위 차우라구 델벼우』

0

原一叶捕獲

환자는어부

繁榮會餘與

실정치못할 이 문제——지금이라도 가른데서 만나면 다시 뗏날피가른데서 만나면 다시 뗏날피하아지고 거지 얼굴이 그때만못하아 지고 거지 얼굴이 그때만못 하는 당이 회복될가? 하는 모데를 로 사라는 당이 회복될가? 하는 모데를 로 사라는 당이 회복될가?

虎疫發生

方魚津에도

派税に収穫高一割豆割及

이일오친구시중이파양부신창리 (平顯府新倉里)구십이번디보청 생희(實盛商會)이커브돌면히화 재가 이러나 바안에차 5두 첫은 고치(繭)약원원어치를래요버리 고 못진화되었느때 원5J인쥐구 병(風穴)이로 부터 불이일어난 것이라더라(현양)

平壌が火災

지난이십

다 시시각각으

이리다가는 실정을 하지나인

(拓『暴徴

化門廣場57分 一段叶香리汀同日 自下午一時至二時 光

소자료와 보게를 너무가혹하게바더 너무가혹하게바더 의혹이 악독한동력 (東 마 수 에 걸려 쉬고향을 등지 마 수 에 걸려 쉬고향을 등지 整合はな とかけら 世早か 名意又檢學 本 구 성상남도방어진 (慶倫南道方魚 本 수 주 어선(漁船) 대칭호 여성한 의 보다나며 고기잡이를 하던증 지난 이십일일으후부러 설수와 모자를 하기시작하여 이십이일 모자(神項)해안에서 주정는데 검시한결과호를 하더ሪ(漁船)의 고기잡이를 자하여 어선(漁船)의 고기잡이를 자하여 어선(漁船)의 고기잡이를 자하여 어선(漁船)의 고기잡이를 자기하여 어선(漁船)의 고기잡이를 지하여 어선(漁船)의 고기잡이를 다 된다.

되가 이미몽등인이상 그림남편 아이를 아니나혼것이 크게행복 이라고하얏다▲무론이두남녀사 슬는지 모르지마는 돈들벌지안 보다도 다르리유가인

우 서라 고 십 건 說

을結果 用除果豆治 豆이去內生 下質以計服 が甜味とこさ 利の論と叫故作

相 지그리치만 그사람이실패를당하고 다시청공한되가아니면 다시청공한되가아니면 다 스면 어떡하나 자긔가준첼량이라는 거리에 기대지는안들레라 모하고실하며 봉선이는열심으로 웃는다 『이건내가 시험을 방나하지만 구심혼마음이 있스면야 비게구 사게구가 있을리가있나 철량가 상실지장이면 사랑이 하기 취음부러말이 안되지』 보신이도그러라고생각하였다

의 어서 디를만나보고도 솔슬피해 다라나면 어떻레냐?』

지구나』하며 연화는우爿버렸다 기그러나 局的外叶

무요가 한마되만더라답을하면 가나서종으니까 마셨다고 봉천이가정화 가나서종으니까 무지 안동면 모르겠나으 아이 본푼면었다고 가리조와 지낼때에 무표판면었다고 가지가 다ー된되어 이 의다는지 등을 도차가서 알지 나라구 외정이 위반을 주스라단 이 인다는 말하며 민찬이 위반을 주스라단 東京城支店 大阪 日本總發賣元 支 店 一取扱む、光圓、拾圓、 大阪市東區本町一丁目電学前、東京市本郷區莫砂町九電車通 、振替東京三一八五八) 東京市本郷區莫砂町九電車通 (振替東京三一八五八) L壽堂大藥房

附属を一院 水支店内の附屬を除り設

변 보고 자리남편의원호이 시인듯한 그이렇거군의원호이 시인듯한 그이렇거군의원호에 시인듯 하지 제가제마음에 무려보고 지금 하지 제가제마음에 무려보고 지금 부러보고 골잘된번 무려보고 지금 색이는것이이보데이었다 『글세 당해보아야지』하며 이어 당하는 우스며 마조치어다볼뿐 지만 지금 최주사가서울와서두 안차커보고있다가 그런 연극장 에서 만난다면 그런에 아모리정 라게지뱃드리도 나는 인사는할 이어 가리살생각은 아니날것 『아니 やいかいき対口のりい 總宣傳部 評 O E

横が接美

면?

申込かみ 行所外務員1百名至島大家集日 中込かい 行所外務員1百名至島大衆島の伊州島の行商販賣書籍三百部島供給かえり先金七圓五十錢多添付申請かり円定價九先金七圓五十錢多添付申請かり円定價九

△絕無耳丁前至急申請か八名代金引換む△日用百貨幻製造方法を無産大衆別薦舉△由用百貨幻製造方法を無産大衆別薦舉△

和自權出 △第二囘大宣傳……陳大善先生蓍◎朝鮮半島의突然秘密暴露

『그씨말이야』하며 연화는 또 참잣고안죗다가 『그래지금이라 두만나면 살레냐?』하고웃스며 무려보앗다

『二时刊되면 与心炎可形容的

◎申込所

이십원에 달려왔는바 주이의는 음속하고 그와가리 도망하면(다 는데 료리당주인은 가방면이로 수색증이나 도모지종되어 망면 하다하며 그는남원군도덕리(南 原郡屯納里)에사는 녀자라더라

『二君出か얼보았단말이지?』

一等軍路百尾正衛先生著◆總斯服行付亞性學大學百尾正衛先生

屍民皇停車場

에

監禁

浦署警官

0

방가를음산한날이긴장마머리 역일되모양으로 사람의 마음을 폭가라안치는것가라얏다봉선이 는묘삼우에 플레이어 버릇어도

가 이번도 한참 무대에서 특당적이나 생각을하다 마가성다 연화의 생각에 느등적을 마가성다 연화의 생각에 느등적을 존사받을 원망으로보고 커리케 존사받을 원망으로보고 커리케 기념자로쉬는 위해가한참이지 위해반지나면 고만이로구나』 하며심화가 가락안짓는지 오유 한목소리로 말놀먼커 건다 단청사에서만나본

波瀾重疊早上都草小作爭議

平子三十七 でるき か三 との いかせる

干品冠全对회化中의付的金号的印卫